

부산상공회의소

Story for 부산CEO

Show

11월호

2022 November
Vol. 608



The Bu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CEO 취향저격
발길 머무는 골목길
CEO의 단골 맛집

ZOOM in BCCI
Story of 캡틴 장
Look at Me

Contents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발행처 부산상공회의소
 발행인 장인화
 편집인 이영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전화 051-990-7000
 디자인·제작 (주)프린테크 051-301-3113
 표지디자인 메이플디자인 051-257-0302

부산상공회의Show에 게재되는
 각종 내용은 반드시 부산상공회의소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CEO 취향저격

04

발길 머무는 골목길
 부산을 거닐다 '부산진성'



08

여행지 추천
 겨울이 오기 전 가보면 좋을
 추천 여행지



12

영화 돋보기
 극장가를 핫하게 달군 최신 명작 영화 추천
 <헌트>



14

CEO의 단골 맛집
 열근한 국물의 오리탕이 일품인
 '정원오리촌'



16

가객의 인문학
 중년의 아름다움, 아우라
 변진섭 <그대 내게 다시>

ZOOM in BCCI

18

밋업 페스티벌
 부산상공회의소 INOVATION MEET UP
 FESTIVAL 99°C



22

Story of 캡틴 장



24

Together with 203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



2030 BUSAN WORLD EXPO
 유치 활동 in Europe



28

기업포커스
 (주)펠릭스테크



32

Look at Me
 스타트업 '주스마트소셜'



트렌드 TALK

36

Do You Know MZ?
 MZ세대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

경제 KEYWORD

38

당신 회사의 '경(經)'은 무엇입니까?

40

보보와 함께 알아보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42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44

부산경제계 이모저모

48

멤버스 라운지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





부산을 거닐다 6편 ※ 거닐다(걷다+읽다)

부산진성 서문

잃어버린 부산진성을 찾아서

글_ 손민수 부산여행특공대 대표·이바구스트

부산진시장에서 길을 건너 풍기인견과 복권판매점 사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 부산진성공원이 나온다. 부산 사람 중 부산진성공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자성대 공원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 거기’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렇다. 오늘 향하는 곳은 자성대 공원이 있던 곳이지만 이제 자성대 공원은 없다. 부산진성공원으로 제 이름을 찾았기 때문이다.

부산진성에서 자성대로 그리고 다시 부산진성으로

부산진성은 우리나라의 남쪽 국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으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쳐들어와 조선 최초의 격전지가 된 곳이었다. 임진왜란 당시의 부산진성의 위치는 동구 좌천동에 있는 증산 아래로 추정되는데, 임진왜란으로 부산진성이 함락된 후 왜군들은 성을 허물고 증산에 증산왜성을 쌓고는 부산성(釜山城)이라 하였다. 옛 자성대공원으로 부르던 작은 동산에도 자성대왜성을 쌓고는 증산왜성을 본성(本城)으로 삼아 지성(枝城) 혹은 자성(子城)이라 하였고 정상부(頂上部)는 돌로 된 성곽을 두르고 평지화하여 자성대(子城臺)라 하였다. 1599년 임진왜란이 끝난 뒤 1607년에 왜성을 고쳐 쌓은 절충형의 조선 후기 부산진성이 현재 부산진시장과 옛 자성대공원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에 완성되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전차길 공사, 도로 확장, 시가지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허물어졌다. 일제에게 ‘부산진성’의 허물어짐은 중요하지 않았고 자신들 선조의 유적인 ‘자성대’를 더 중요시하면서 ‘부산진성’은 사라지고 왜성과 ‘자성대’라는 이름만이 남았다. 300년 세월의 ‘부산진성’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자성대’만 남은 것이다. 이제라도 ‘부산진성’이라는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함을 느낀다.

부산진성 안의 작은 동산을 오르며

최근 부산진성공원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금루관’이라는 현관이 걸린 서문 앞은 광장처럼 넓어지고 분위기도 좋아졌다. 서문의 양옆으로는 ‘서문쇄약(西門鎖鑰)’, ‘남요인후(南徼咽喉)’라 쓰인 서문성곽우주석(西門城郭隅柱石)이 있다. ‘이곳은 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남쪽의 국경이며 서문은 나라의 자물쇠와 같다’라는 뜻으로 이곳이 정말 중요한 국방의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서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가니 계단이 나타난다. 계단 위쪽으로부터는 산책로가 조성된 작은 동산이다. 1974년 복원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부산진성은 성내의 자성대산을 중심으로 산 아래 경계를 따라 몇 개의 성문과 정상부에 장수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장대를 세웠다. 원래 부산진성 크기의 5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임진왜란과 부산진성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산의 정상부로 오른다. 계단 끝에서 표지판을 따라 길을 걷다 정상부를 올려다보니 석축으로 된 성곽이 보인다. 길을 따라가자 어느새 눈앞에 거대한 성벽의 모서리 부분이 나타난다.

1_ 부산진성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2_ 부산진성 서문 양옆으로 서있는 서문성곽우주석



우리와 일본의 문화가 다름을 보여주는 성벽

일본의 성은 우리의 성과 달리 성벽을 단(壇)으로 쌓아 올린다. 우리 성이 공간을 구분하는 개념에서 수직의 성벽을 두고 내 외부를 구분하고 내부에는 백성들이 함께 사는 구조라면 일본의 성은 비스듬한 형태로 성벽을 단으로 쌓아 내부에는 그 지역의 영주와 측근이 사는 구조다. 일본의 성벽이 우리와 다른 이유는 전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무수한 전쟁을 치른 경험과 문화와 환경의 차이로 생각된다. 비스듬한 형태로 단을 쌓아 올린 것은 지진에 대한 대비와 수성(守成)을 위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실제 수직의 성벽에 적이 등을 대고 서면 위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비스듬한 성벽에는 딱 달라붙을 수가 없어 사각지대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같은 장점을 조선에서도 인지하여 부산진성을 다시 쌓을 때 성벽의 기울기를 80도 정도로 하였고 1800년대 말의 부산진성 사진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본의 성을 쌓는 방식인 대각선으로 성벽을 쌓은 모습

명나라 천장군과 고려 최영 장군을 기리는 곳

자성대산 정상(자성대)에 오르니 승가정이라는 건물이 있고 왼쪽에는 ‘천장군 기념비’가 있다. 정확히는 ‘충독장화산군영양천공지비’이다. 임진왜란 당시 참전했던 명나라 장수로 여러 공을 세우고 조선에 귀화한 ‘천만리장군’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영양천씨 석대동파에서 1947년

비를 세우고 비문은 요산 김정한 선생님께서 쓰셨다. 세월의 무게 탓인지 비문 일부가 벗겨지고 비석 머릿돌(螭首)부분도 일부 파손되어 안타까움이 크다. 참고로 재밌는 것은 ‘천장군 기념비’라는 안내판이 놓인 쪽이 정면이 아니고 후면이며 승가정 역시 안내판이 있는 곳이 후면이 된다는 점이다. 정면은 둘 다 가까이서 북향을 내려다보고 멀리는 대마도와 일본을 바라보는 듯하다. 안내판을 따라 왼쪽으로 내려가니 고려 충장인 최영 장군의



부산진성 정상에 있는 승가정



천장군 기념비석

사당이 있다. 유리 너머로 무민공최영장군비각이라 쓰인 비석 앞으로 장군의 초상이 보인다. 바깥에는 ‘황금보기를 둘 같이 하라’는 굵은 글씨가 있는데 이 명언은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다. 평생을 청렴과 충신으로 살았으며 왜구를 토벌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던 최영 장군. 백성들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주길 늘 기도했던 탓인지 남해안 일대에는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이 많고 특히 무속에서도 장군신으로 많이 모셔지고 있다.

한·일 교류의 상징 조선통신사 역사관

조선통신사역사관으로 향한다. 조선통신사 행렬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마상재인’ 동상이 방문자들을 반긴다. 입구에는 역대 조선통신사로 다녀온 정사, 부사, 종사관의 이름과 통신사파견의 목적이 쓰여 있는데 1~3차까지의 포로송환업무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일본 막부의 최고 권력자의 권력 이양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간 일본을 12차례 오갔던 사절단이다. 한양에서 출발해 부산을 거쳐 뱃길과 육로를 헤치며 막부 최고 권력자인 쇼군에게 국서를 전달하기 위해 당시 에도(동경)까지 왕복 4,500km 넘는 거리를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다녀온 죽음을 무릅쓴 엄청난 사행이었다. 그래서일까? 한·일교류를 위해 극한의 조선통신사가 오갔던 200년의 시간은 단 한차례의 침략과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최영 장군 사당안 비각 및 초상

시기로 기억되기도 한다.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조선 통신사가 파견된 경위와 역할, 여정, 교류, 음식 등 다각도로 조선통신사를 조명하고 영상 및 자료들을 활용하여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공간이다. 아울러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한·일 공동 등재를 위한 노력의 시간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거닐음은 임진왜란 침략의 역사와 조선통신사가 추구했던 평화의 역사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기억의 여정이었다. 닳은 듯 닳지 않은 듯, 서로를 가장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서로를 전혀 알 수 없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조선통신사 역사관 입구와 역사관 내부 모습

겨울이 오기 전 가보면 좋을 추천 여행지

글·사진_ 문철진 여행작가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르게 겨울이 코앞이다. 동장군이 찾아오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다. 늦가을과 초겨울 분위기가 적절히 섞인 11월은 어느 때보다 여행을 떠나기 좋은 시기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보면 좋은 여행지들을 소개한다.



1, 2, 3_ 경주 계림



경주 계림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를 꼽으라면 단연 첨성대다.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이고 생김새부터 남달라 경주 여행에 빠지지 않는 단골 명소다. 하지만 대부분 첨성대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발걸음을 돌리기 일쑤다. 첨성대는 까맣게 잊을 정도로 멧진 스포츠들이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첨성대와 반월성 사이에 있는 작은 숲, 계림도 그중 하나다. 사적 제19호인 계림은 신라의 왕성이자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 신화가 서려 있다. 첨성대와 반월성을 술하게 오가면서도 그 사이에 계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키가 큰 고목들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 공원 정도로만 생각하지 역사 설화가 숨어 있는 유서 깊은 숲이라는 건 상상조차 못 한다. 가을의 계림은 화려한 단풍으로 가슴을 설레게 한다. 11월 중순까지도 단풍을 볼 수 있어서 늦은 가을을 즐기기에 좋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수종의 단풍들이 형형색색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청명한 가을 햇살이 눈 부신 단풍은 그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느긋하게 숲길을 걸으며 천년의 가을을 듬뿍 즐겨보시라. 늦가을 경주 여행으로 딱 한 곳만 간다면 주저 없이 계림이다.



1_ 산청 남사에담촌

산청 남사에담촌

지리산 동쪽 자락에 있는 산청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그 중심엔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남명 조식이 있다. 그가 말년에 후학을 기른 산천재와 덕천서원 등 남명의 유적들이 산청 곳곳에 남아 있다. 남사에담촌은 산청의 그런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는 마을이다. 수백 년 된 한옥과 고목, 돌담길이 지금까지 잘 보존돼 예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옛 담 마을’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오래된 돌담이 특히 인상적이다.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도 크다. 담장의 높이는 2m에 이른다. 걷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탄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쟁쟁한 양반 집안이 많았던 방증이다.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 구조를 가진 ‘이씨고가’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때 묵었던 ‘이사재’ 등 마을 곳곳에 문화재도 즐비하다. 전통 한옥을 구석구석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남사에담촌을 찾을 가치는 충분하다.



밀양 금시당

밀양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기와집들이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다. 1566년 조선 명조 때 좌부승지를 지냈던 이광진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별장, 금시당이다. 금시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지만 후손이 1744년에 복원했다. 가을이 되면 금시당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금시당 정원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서다. 수령이 500년 가까이 된 고목으로 어른 세 명이 팔을 돌려야 동치를 겨우 잡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만큼이나 잎도 풍성하다. 샛노란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하늘을 가릴 정도다. 11월 중순을 지나면 하나 둘 잎이 떨어지기 시작해 나무 주변 바닥이 노랗게 물든다. 잎이 달려 있을 때도 예쁘지만 이렇게 바닥에 은행잎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황토를 쌓아 올린 담장과 그 위에 얹은 기와가 멋진 배경이 되어 주니, 여기저기서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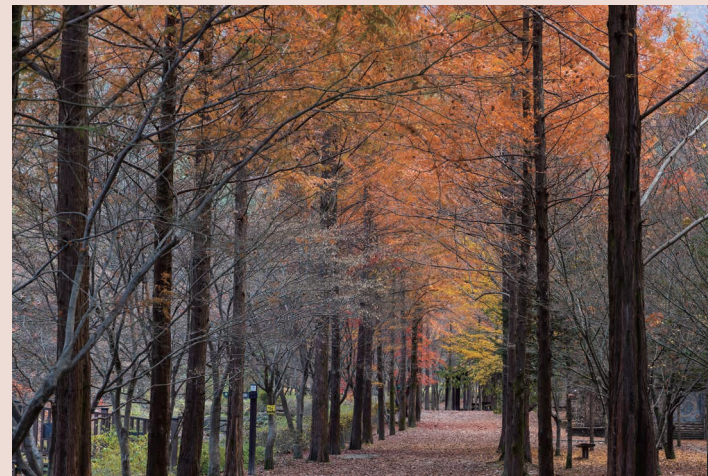


2,3_ 밀양 금시당

대전 상소동 산림욕장

곱게 물든 단풍 사이로 붉은 돌탑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마치 태국이나 캄보디아의 유적지처럼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외국인이 싶지만 놀랍게도 한국이다. 대전 상소동에 위치한 상소동 산림욕장이다. SNS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 때문에 상소동 산림욕장은 전국구 명소로 떠올랐다. 특히 단풍이 절정에 달하는 11월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계곡을 따라 제법 길게 이어지는 숲속 산책로는 피톤치드로 가득하다. 짙은 갈색으로 변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늦가을의 낭만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산림욕장 내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평상과 의자를 갖춘 피크닉장도 마련되어 있다. 온 가족이 함께 도시락을 챙겨 한나절 숲 체험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다.

4,5_ 대전 상소동 산림욕장



극장가를 핫하게 달군 최신 명작 영화 추천 총구를 오가는 시대정신 <헌트>

글_ 김은정 영화의전당 시네도시트·영화평론가

영화를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은 영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영화를 통한 세계 창조 즉, 연출일 것이다. 꽤 오랜 시간 대중에게 사랑받아 온 배우가 감독으로 데뷔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정재 감독의 <헌트>는 다채로운 액션이 가득한 첩보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그것으로도 영화를 즐기기에 충분하지만, 감독이 장르 이면에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았는지 되짚어보자.

1980년대를 상상하다

미국 순방 중 벌어진 대통령 암살 시도, 북한 고위 관리의 망명 작전 실패 등 연이은 사건으로 안기부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안기부 해외팀 차장 박평호(이정재)와 국내팀 차장 김정도(정우성)는 조직 내 일급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스파이의 존재를 의심한다. 게다가 새로 부임한 부장이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박평호와 김정도는 상대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남파 간첩 '동림'의 행적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헌트>는 198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는 픽션이지만 당시를 생생하게 떠올릴만한 실제 사건들이 모티브로 등장한다. 518민주화운동과 군사정권, 학생들의 시위와 고문 경찰, 장영자 사기 사건, 1983년 미얀마에서 일어난 아웅산 테러, 전투기를 직접 몰고 내려온 북한 공군 장교 이웅평 귀순 사건...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영화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인물의 긴장과 압박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데 왜 하필 이정재 감독은 자신의 첫 연출작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했을까.



개봉 2022. 08. 10.
 등급 15세 관람가
 장르 액션, 드라마
 국가 대한민국
 러닝타임 125분
 배급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사진출처: 메가박스중앙



의심에서 암목적 동조로

박평호와 김정도는 서로를 간첩으로 의심한다. 상대가 간첩임을 밝혀내기 위해 미행과 도청, 주변 인물 탐색은 물론이고 해외 출장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한다. 급기야 상대가 간첩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이 간첩으로 지목될 위기 상황에 놓인다. 안기부란 같은 조직 안에서 이제 해외팀과 국내팀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 수십 명 안기부 직원들은 몸싸움을 벌이느라 막 의식을 되찾은 동료 한 명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 이 영화의 첫 번째 재미는 관객 역시 누가 '동림'인지 의심하게 된다는 점이다. 감독은 박평호와 김정도 모두에게 약간의 혐의를 보여주며 두 인물 모두가 상대를 '동림'으로 의심하는 상황에 관객을 동참시킨다. 그러다 막상 '동림'의 정체는 상대방이 아닌 자기편의 수사로 밝혀진다. 일반적으로는 범인을 찾은 게임에서 범인이 밝혀진 순간, 영화는 동력을 잃고 끝을 향해간다. 그런데 <헌트>는 동림이 밝혀진 순간 상황을 비튼다. <헌트>는 스파이 대 영웅의 서사가 아니다. 영화의 후반부, 박평호와 김정도 두 사람 모두에게 있던 간첩의 혐의는 누가 '동림'인지를 지시하는 증거에서 '목표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단서로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은 가는 길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하는, 스파이이자 스파이다.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그들, 일순간 의심의 시선은 암목적 동조의 시선으로 바뀐다.



마지막 총성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국내 외부 단체의 간첩인 인물과 국외 기관의 간첩인 인물이 같은 미션에 도전한다. 국내팀과 해외팀의 반복이다. 내부자이면서 외부자, 서로 의심하면서 동조하는 두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의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그리고 미션에 실패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어쩌면 감독은 긴장과 대립이 극에 달하던 1980년대를 불러와 혼란스러운 오늘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헌트>는 어디를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몇 발의 총성으로 끝난다. 마지막 총구를 쏜 여인 역시, 이편에도 저편에도 설 수 있는 인물이다. 감독은 그렇게 마지막 총성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

얼큰한 국물의 오리탕이 일품인 '정원오리촌'

강서구 명지에 위치한 정원오리촌은 올해로 20년째 운영 중인 청동오리 요리 전문점이다. 인터뷰를 위해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고 가게를 방문하였음에도 여전히 식사를 하는 고객들이 가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었다.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27 3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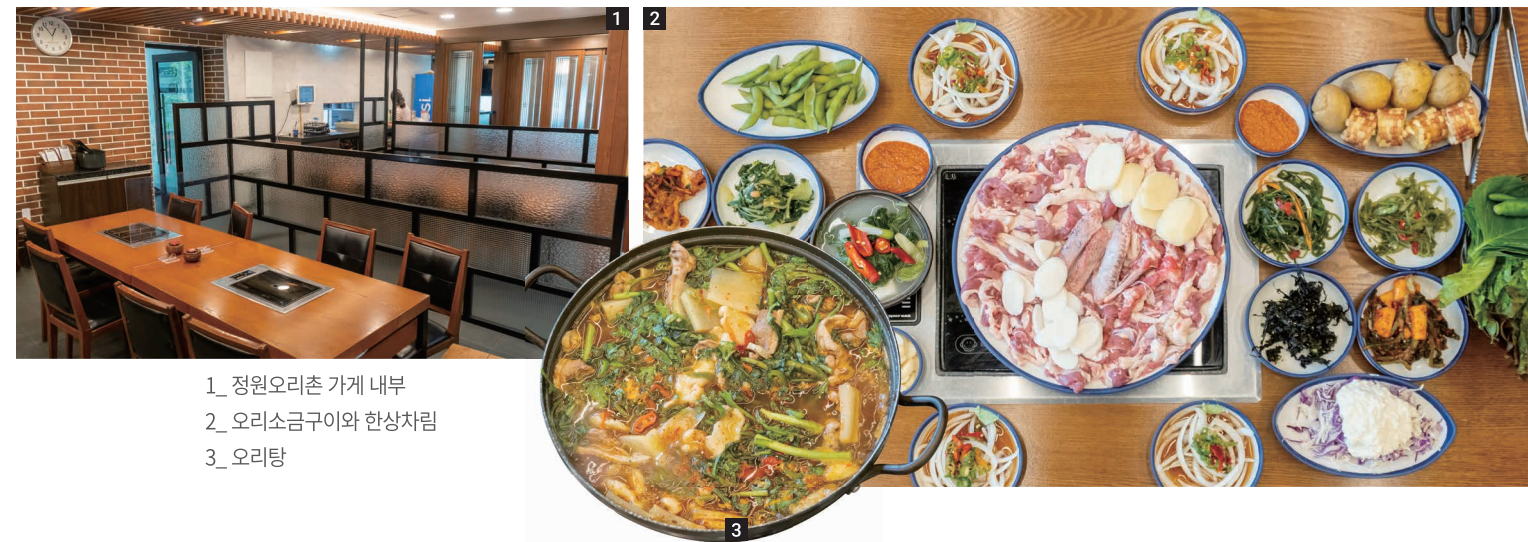
올해로 20년이 된 명지 맛집

정원오리촌은 2002년 현재 명지 스타필드가 들어서 있는 전동 마을에서 가게를 오픈하고 7년을 운영한 후 현재 위치한 명지오션시티로 이전하였으며, 올해로 운영한지 20년이 되었다고 한다. 가게의 주인인 이화자 사장님은 원래 남포동에서 10여년간 의류 장사를 했었다고 한다. 의류 장사를 하면서도 평소 꼭 한번 음식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의 권유로 오리 전문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20년간 정원오리촌을 운영하면서 명지 지역에서는 유명한 오리 음식 전문점으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고객들이 즐겨찾는 곳

정원오리촌은 위치가 명지에 있는만큼 인근의 녹산공단에 있는 기업체 관계자들이 단골고객이라고 한다. 자주 방문하는 기업들은 리노공업, 금성볼트공업, 성광밴드, 광명잉크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찾는다고 한다. 특히 기업체 고객들 중에는 처음 가게를 오픈했을 때 부터 지금까지 20년 단골로 찾아오는 고객도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정준하, 이동욱 등 연예인들도 다녀가고, 롯데하이마트 선수들, 부산에 거주하는 중국, 대만, 일본인들도 자주 찾는다고 한다.

정원오리촌 가게 입구



1_ 정원오리촌 가게 내부
2_ 오리소금구이와 한상차림
3_ 오리탕

얼큰하고 맵싸한 오리탕 찐 맛집

다양한 고객들이 정원오리촌을 찾는 데에는 맛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원오리촌은 청동오리 구이, 오리탕을 판매하는데 특히 이중에서도 오리탕이 고객들의 최애 메뉴라고 한다. 오리탕은 다른 가게에서 판매하는 오리탕과 달리 칼칼하고 맵싸하여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맛을 자랑한다. 오리탕의 얼큰하고 칼칼한 맛에 소주 한잔하러 오는 고객과 음주 후 다음날 해장을 하러 방문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어 다시 찾는 맛집

고객들 중에는 부산에 주재원이나 파견, 출장을 왔을 때 정원 오리촌 음식을 맛보고는 서울, 대구, 거제도 등에서 다시 찾아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오리탕을 택배로 요청하는 고객들도 꽤 있다고 한다. 정원오리촌은 명지가 본점인데 현재는 엄궁, 양산, 대대포 이렇게 세 곳에도 가게를 오픈하여 사장님의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사장님은 오랜 시간 고객에게 사랑 받아온 만큼 늘 맛있는 음식으로 고객들에게 보답해나갈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작은 반찬 하나부터 모든 음식에 진심을 담은 음식점

정원 오리촌의 특징은 작은 반찬 하나부터 모든 음식을 사장님이 전부 직접 만든다는 것이다.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며, 항상 가장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는 이화자 사장님은 매일 새벽 엄궁 농산물 시장에 가서 채소와 각종 반찬거리를 사와서 반찬을 만들고, 오리탕 육수도 매일 아침 3~4시간씩 푹 끓여서 만든다. 오리탕 이외에도 오리 소금구이와 양념구이도 인기있는 메뉴인데, 두 메뉴도 주문 즉시 생고기에 양념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오리 요리 뿐만 아니라 반찬도 맛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한다. 사장님은 음식들을 주문이 들어오고 난 후에 즉석으로 만들고 신선한 재료를 쓰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마음과 함께 고객들이 먹는 음식이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원오리촌 이화자 사장님



중년의 아름다움, 아우라 변진섭 <그대 내게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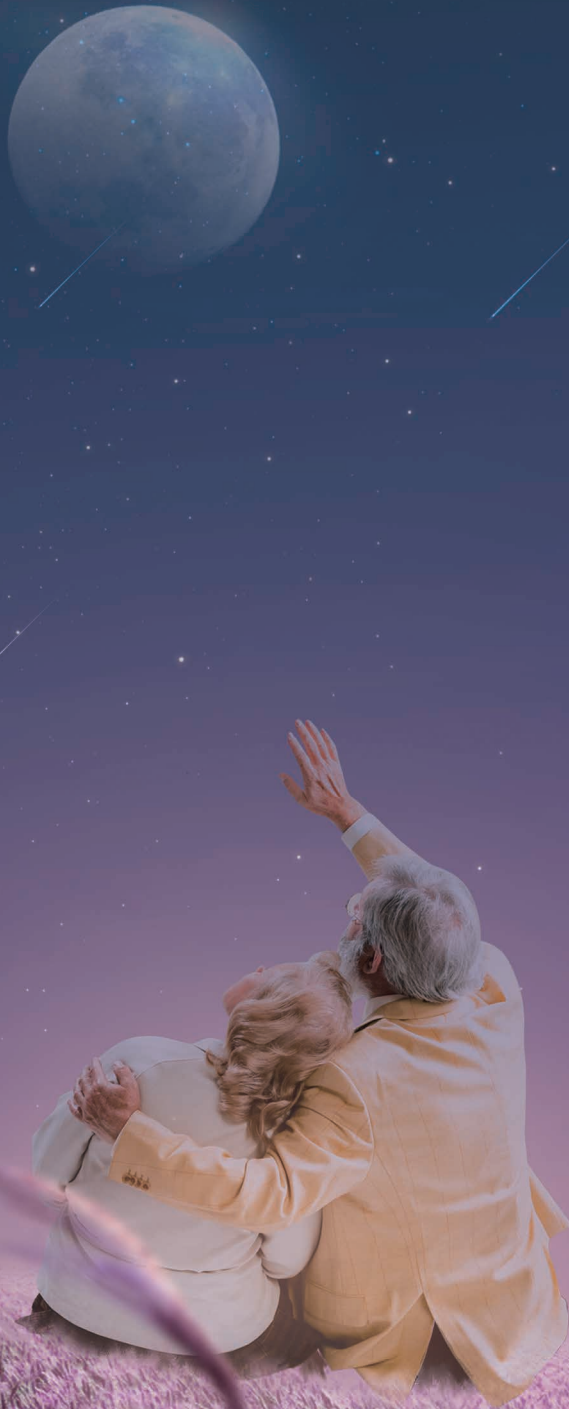
글_ 한귀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작가

11월 사무치게 아름다운 계절이다. 과장이 아니다. 차라리 12월은 '집단적으로' 연말 분위기를 누린다. 11월은 '혼자서' 고독하다. 한 해가 다 가고 있다는 감상에 빠진다. 사무치게 아름다운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세월은 또 지나가고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간다. 누구나 그러하다. 그래서 11월은, 혼자만 고독하다고 느끼는 개인들이 집단을 이루는 시기다.

11월 어느 날, 누군가 자신에게 “그냥 오면 돼”라고 말한다면 눈물 쏟을 이, 여럿 있을 것이다. 외로운 줄 몰랐는데, 힘든 줄 몰랐는데, 누군가 알아봐 주면 왈칵 외롭고 힘들어진다.

자기연민이다. 자기연민은 퇴행적 감정이다. 무릇, 성숙한 어른이라면 자기연민은 노출시키지 않는 법이다. 자기연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관리된 자기연민의 감정은 가끔 해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진다.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는 자기연민을 순식간에 해제시킨다. 그래서 위험한 노래다.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내가 그댈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 헤메이나요
맨 처음 그때와 같을 순 없겠지만
겨울이 녹아 봄이 되듯이 내게 그냥 오면 돼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내게 그냥 오면 돼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왈칵 울컥하니 참으로 난감하다. 이 노래, 1992년에 발표됐으니 적어도 이 무장해제가 누군가에게는 30년째일 것이다.

이 노래의 키워드는 ‘그냥’이다. ‘그냥’에서 무너진다. ‘그냥’은 절대적이다. 누군가 “그냥 오면 돼”라고 말 건넨다면 다리에 힘이 짝 풀린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동안 받은 친절과 사랑은 노력의 대가였다. 진정한 환대는 조건이 없는 거다.

그러데 왜 우리는 ‘그대’에게 동일시되는 걸까. “그냥 오면 돼”라고 말하는 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걸까. 아마도 “그냥 오면 돼”라고 말을 건넨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도 아니었던 것. 그래서 이 노래에 더 사무친다.

이 사무침은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사랑은 단 하나의 감정 상태가 아니다. 사랑은 행복을 주지만, 그만큼 고통도 ‘원 플러스 원’으로 얹힌다. 감당 못 할, 고통 섞인 향유를 주는 그 막막한 길이 사랑이다. 불가해한 길이다. 가봐야 조금씩 알게 된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 나이와 무관하게 가능하다. 젊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젊어도 못할 수 있다. 그 예측불허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사랑이 가능하다.

사랑을 위해서는 아우라(aura)가 필수다. 비주얼(visual)이 아니라 아우라다. 다른 사람은 복제할 수 없는 자신만의 분위기가 아우라다. 더 나아가, 가까이 있지만 멀게 느껴지고, 멀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우라다. 아우라는 주관적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우라를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내게 아우라를 발견한다고 해서 내 아우라가 모든 이에게 발산되는 것도 아니다. 아우라는 일대일의 관계다. 그 일대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거의 기적이다.

롤랑 바르트가 말했듯, 아우라를 느끼는 순간엔 주름이나 뒤꿈치 각질마저도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요소가 된다. 얼마나 마법 같은 순간인가. 주름이나 각질을 제거해야만 하는 흉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티 에이징 한답시고 주름을 펴고 과하게 치장하면 그건 아우라를 스스로 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참고가 될 순 있는 인물이 있다. ‘정우성’. 정우성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월이 그 얼굴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 세월과 무관한, 아니, 세월에 역행하는 눈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모순’이 정우성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의료기술의 흔적이 없는 얼굴, 그래서 더 슬프고 무심한 얼굴. 그가 미소를 지을 때 목직한 세월이 한꺼번에 무겁게 밀려온다. 그 무거움은 순식간에 그의 형형한 눈빛으로 휘발된다. 과연, 중년의 아름다움은 그 ‘모순’에 있다.

11월은 그 모순의 얼굴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얼굴은 적절하게 주름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눈빛 뿐.

부산상공회의소 INOVATION MEET UP FESTIVAL 99°C

부산상공회의소는 10월 12일(수) 오후 5시 해운대 웨스틴 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노베이션 및업 페스티벌 99°C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부산 상의가 차세대기업인과 스타트업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무르익은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하였으며, 차세대기업인 클럽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함께 참여하였다. 행사는 부산상의 장인화 회장과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차세대기업인, 스타트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행사 시작 전 활발하게 인사를 나누는 기업인과 스타트업들



장인화 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99°C 행사에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통해 기존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에게는 든든한 파트너 매칭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존 기업의 혁신과 스타트업의 육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모두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공동선언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차세대 기업인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과 교류,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과 경쟁력, 패기와 도전의 기업을 정신을 갖춘 다양한 스타트업이 잉태될 수 있도록 창업기반과 관련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선언문 내용 中

환영사에 이어 산업과 기업의 발전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부산시, 부산상의, 부산창경, 차세대 기업인과 스타트업이 지역 대전환의 주체로 역할을 다하기 위한 혁신공동선언 세레모니를 진행하였다.

<B.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in 부산> 참여 스타트업 “나의 협업일지” 발표



테라블록 권기백 대표

서리 이종혁 대표

혁신공동선언 이후에는 스타트업 테라블록과 서리가 롯데글로벌로지스 사업장에 자신들의 솔루션을 적용해봄으로써 대기업은 자생적으로 만들기 힘든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고, 스타트업은 자사의 기술을 기업현장에 도입하는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루키 스타트업의 차세대 기업인 프로포절 “Pick Me Up”

행사에 참여한 차세대기업인들에게 스타트업이 가진 사업 아이템에 대한 협업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화물 로딩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장치를 개발 중인 카고서틀과 제조 기업의 리퍼 및 재고에 대한 새로운 판매 채널을 제공하는 팜코브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카고서틀 강태훈 대표

팜코브 양정환 대표

토크 콘서트: 99°C의 열정과 1°C의 관심

오픈이노베이션이 기업과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만큼 어떻게 스타트업과 협업해나갈지에 대해 토론하고, 99°C 행사에 대한 차세대기업인과 스타트업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기업인클럽 김기덕 회장

차세대기업인들에게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대가 있는 만큼,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산의 청년유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차세대기업인과 스타트업의 교류 기회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99°C와 같은 행사들이 필요하다.

차세대기업인클럽 류상훈 부회장

차세대기업인들도 산업 패러다임 급변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늘 스타트업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솔루션을 찾고, 신산업 진출 가능성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동남권협의회 김태진 회장

스타트업이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척박한 지역 스타트업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중요하며, 스타트업과 차세대기업인이 만남의 기회를 통해 교류 확대와 신뢰가 확장된다면 창업펀드와 투자조합 등 더 큰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브이드림 김민지 대표

지역 스타트업들중 회사를 성장시켜 M&A를 통한 Exit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기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기존 기업이 갖춘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열정이 합쳐져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미래에 더 큰 경쟁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차세대기업인과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타임



부산상공회의소 이영활 상근부회장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송용준 센터장 |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 | (주)명진TSR 조시영 대표

토크콘서트에 이어 차세대 기업인과 스타트업의 네트워킹 순서에는 주요 인사들의 지역스타트업을 응원하는 건배사가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는 시간을 가지며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네트워킹 타임에 활발한 교류를 나누는 참석자들



부산상공회의소 이노베이션 밋업 페스티벌 99°C 현장의 생생한 영상은 우측 QR코드에 연결된 유튜브 페이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_ 이노베이션 밋업 페스티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 기념촬영
2_ 이노베이션 밋업 페스티벌 전체 참석자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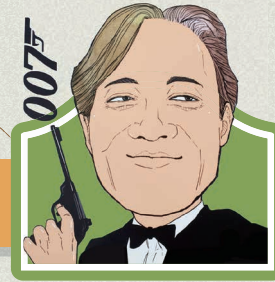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장인화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이노베이션 밋업 페스티벌 99°C 다음날인 10월 13일 오후 7시 영도구 켈스톤에서 개최된 파운더스포럼&워크숍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장인화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부산상의 회장 취임 후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99°C 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있다.

장인화 회장은 “지역 후배기업인들에게 감사패를 받으니 대단히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의 가능성 있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캡틴장의 새로운 캐릭터!
"제임스본드 같은 멋진 벨"



by 웹툰작가 배민기

Story of 캡틴 장

#지역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캡틴장

우리 모두 다같이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
Play To Win!



제245차 부산경제 포럼(2022.9.21.)



땅에서도 하늘위에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에어부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래핑 항공기 공개 행사(2022.9.22.)

가덕신공항 공기
단축을 위해 다함께
의견을 모아보시죠.



동남권관문공항추진 위원회 이사회(22.10.6.)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따뜻한
세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2022.9.29.)

#24시간이 모자란 캡틴장

엑스포 유치
부산이 반드시 해낼수
있습니다. 믿어주이쇼!



장인화 회장 지역 언론사 인터뷰(2022.10.12.)

멕시코, 콜롬비아 대사님
콘서트 열기만큼
저희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해 주실거지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2022.10.15.)

선배 기업인으로서
후배들의 고충을 같이
논의해봅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파운더스포럼&워크숍(2022.10.13.)

부산 기업들이 파키스탄으로
진출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한파키스탄 대사 예방(2022.10.24.)

주한 몽골대사와 기념촬영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기념촬영

박형준 시장 및 주한 페루 대사 일행과 기념촬영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좌측) 일행과 기념촬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



주한 라트비아 대사와 기념촬영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은 10월 15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Yet To Come' in BUSAN에 참석하였다.

장인화 회장은 이번 콘서트 현장에 참석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주한 대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며,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을 지지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

BIE회원국 대사를 비롯한 주요 해외인사들에게 부산이 가진 매력과 부산 시민의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을 전달하였다.

”

한편 이번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는 입장객 5만명을 비롯 부산 곳곳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라이브 플레이를 통해 관람하였으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TV 등으로 229개 국가 및 지역에 생중계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



박형준 시장과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업인들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기념촬영



주한 핀란드 대사와 기념촬영

주한 싱가포르 대사와 기념촬영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와 기념촬영

2030 BUSAN WORLD EXPO 유치 활동 in Europe

10월 17일 부터 23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상의 방문단과 부산시 관계자 등이 프랑스, 핀란드, 영국 3개국을 방문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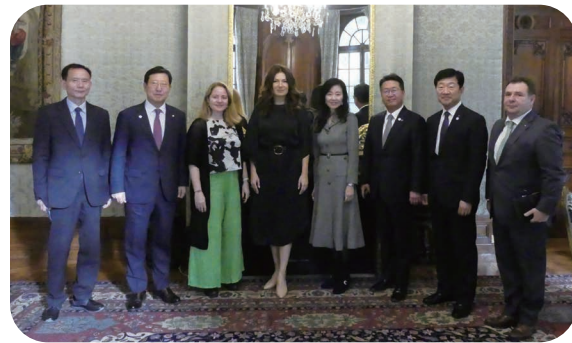
방문단은 이번 유치 활동에서 프랑스, 핀란드, 영국을 비롯하여 이 3개국에 있는 칠레, 루마니아, 멕시코 등 BIE회원국 대사를 면담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번 유치 방문단에는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과 부산상의 이영환 상근부회장, 충남북부상의 정원춘 상근부회장, 부산시 신재현 국제협력대사 등이 참가하였으며, 프랑스 현지에서 삼성, LG, SK,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관계자들이 합류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주 프랑스 칠레 대사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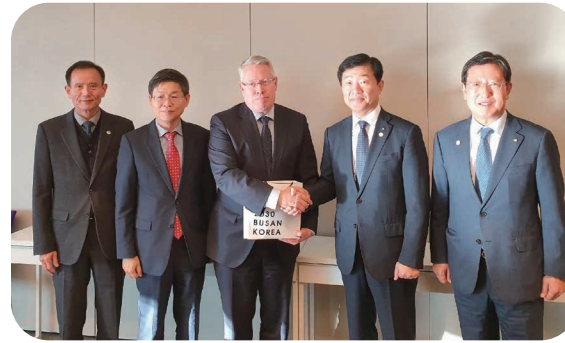
주 프랑스 루마니아 대사 대리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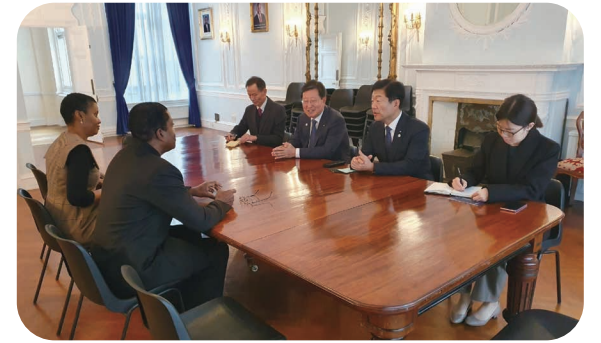
주 프랑스 멕시코 대사 면담



핀란드 경제고용부 차관보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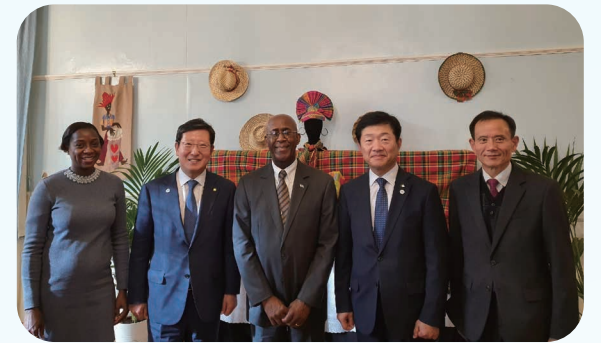
핀란드산업협회 대외협력대표 면담



주 영국 세인트키츠네비스 대사 면담




주 영국 엔티가바부다 대사 면담



주 영국 세인트루시아 대사 면담

특히 방문단은 10월 18일 프랑스 파리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주불 한국 대사관 국경일 행사에 참석한 70여개국의 BIE회원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와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다.

아울러 이후 일정인 핀란드에서는 경제고용부 차관보, 핀란드산업협회 대외협력 대표를 면담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주 영국 세인트키츠네비스 대사와 주 영국 엔티가바부다 대사, 주 영국 세인트루시아 대사를 면담하고 해당국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상공회의소 이영환 상근부회장은 “이번 유치 활동을 통해 유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요 테마인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주)펠릭스테크



다양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금속부품을 만들어내는 단조업은 무엇보다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 펠릭스테크는 석유, 화학, 조선분야와 자동차 부품 단조생산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

1998년 설립하여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주)펠릭스테크는 국내 기업들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에 승용차 및 상용차 디젤 엔진용 피스톤과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해양·육상 플랜트 단조 부품인 플랜지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현재 부산 미음산단에 위치한 본사를 비롯하여 베트남 법인, 미국 사무소, 미국과 멕시코, 폴란드에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는 금속 단조 제품 제조 기업이다.

- 1_ (주)펠릭스테크 본사 전경
- 2_ (주)펠릭스테크 베트남 법인 전경



2018년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서를 수여받은 김종오 대표

글로벌 No.1을 자랑하는 펠릭스테크의 차량용 피스톤

펠릭스테크가 현재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디젤 엔진용 스틸 피스톤은 엔진의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고 연비향상을 실현시키는 고성능 피스톤이다. 스틸 피스톤을 주력 제품으로 하여 그 외 승용차 및 상용차 부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펠릭스테크는 글로벌 스틸 피스톤 시장에서 점유율 35%로 1위 기업이다. 이처럼 펠릭스테크의 스틸 피스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독일 및 중국의 경쟁사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지속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킨 것이 시장의 인정을 받은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펠릭스테크의 지향점은 도전과 혁신

지금부터 30여년 전에는 디젤 엔진 피스톤 소재가 알루미늄이나 탄소강 주물이었는데 엔진 안에서 버틸 수



3_ 자동차 부품
4_ 차량용 LVD피스톤 제품

있는 한계압력이 110bar 한계온도는 250~300도 였다. 1995년 이후 기술이 발전하여 철로 만든 피스톤은 한계 압력 160bar 한계온도 400도를 기록하였는데, 2008년 펠릭스테크가 만든 단조 피스톤은 한계 압력 220bar 한계온도 550도로 피스톤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현재도 향후 2~3년 이후 신소재 기반 고온에서 사용가능한 스틸 피스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한계압력 260bar에 한계온도 650도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개발하여 연료의 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러한 기술발전을 이뤄내는 데는 펠릭스테크가 2008년 개발한 단조 박육 기술이 있어 가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전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이뤄나갈 예정 이라고 한다.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정밀 단조 플랜지

차량용 피스톤 외에도 펠릭스테크의 주요 사업분야는 플랜지 생산이다. 펠릭스테크가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로는 형상 링밀 단조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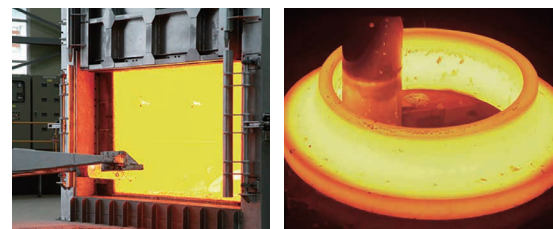
규격 플랜지 제품

비규격 플랜지 제품들

국내에 펠릭스테크만이 대량 양산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술을 통해 플랜지 제작을 위한 소재 투입 중량 30%를 절감하고 가공시간을 4분의 1로 단축, 경정립 미세화 및 내부조직 균일화를 이뤄내 원가절감, 가열 및 열처리 작업수량 증가, 크랙발생 최소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 장력강 플랜지 생산 기술도 확보하여 미국의 길이가 긴 송유관, 가스전송관등에 활용 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펠릭스테크의 단조 플랜지는 해외에는 셰브론, MRC글로벌, 국내에는 현대, 대우, 삼성, 한화,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납품되고 있다.

미래 신사업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펠릭스테크 이지만, 향후 미래 신사업 분야 개척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펠릭스테크는 반도체, LNG선박, 수소충전, 항공엔진 등 총 4개의 미래산업분야에 목표를 세우고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증착 공정(CVD)에 사용되는 히터용 알루미늄 단조품을 국산화하는 개발을 진행 중이며, LNG운반선 및 LNG저장용 고망간강 소재의 단조품 생산기술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소 충전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플랜지 제작 공정



2021년 부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후 기념촬영중인 김중오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

신소재 단조품 개발과 양산을 통해 수소 경제에도 대비 하고 있으며, 미래 무인항공기 분야의 엔진용 티타늄·인코넬 소재의 Ring 제품도 개발하여 국내 대기업에 공급 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한 수상실적과 대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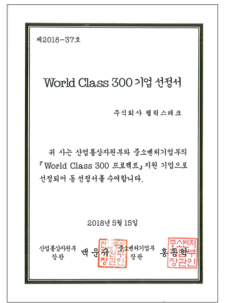
펠릭스테크의 김중오 대표는 '바른길이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있는 가장 빠른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지금까지 경영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경영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기업인으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상들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2년 2,000만불 수출탑 수상을 시작으로 2014년 제16회 부산수출대상 수상, 2014년 3,000만불 수출탑 수상, 2018년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 2018년 5,000만불 수출탑 수상, 2021년 무역의 날 수출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2021년 부산시 제29회 산업평화상 기업인부문 수상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김중오 대표는 올해 초 서로 다른 업종의 교류·협력단체인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 17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 중에 있다. 김중오 대표는 임기동안 연합회의 회원사를 늘리고, 기업 간 협업을 권장하여 원가절감 또는 공정개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고 있다.



오천만불 수출의 탑



2021년 무역의 날 국무총리 표창장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서

행복발전소를 지향하는 펠릭스테크

김중오 대표는 펠릭스테크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행복 해지는 36.5 행복 발전소가 되도록 따뜻한 조직문화 만들어 가는 데도 늘 신경쓰고 있다. 펠릭스테크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는 조직 문화를 위해 다양한 워크숍과 동호회 활동도 시행하고 있으며, 자기계발도 지원한다. 김중오 대표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활기찬 분위기의 기업경영을 통해 직원들의 행복발전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022년 펠릭스테크 임직원 생명나눔 단체헌혈 활동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용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HR Tech 전문기업

Job&Career 매니지먼트 그룹

(주)스마트소셜

(주)스마트소셜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스타트업으로 부산시를 대표하는 우수 사회적 기업이다. 스마트소셜은 취업, 진로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리크루팅 알고리즘,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첨단 IT를 통한 잡미스매치 해결로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기업경영 목표로 삼고 있다. 모두가 취업난을 이야기하는 시대, IT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취업, 맞춤형 고용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 평생 자신에게 최적화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tartUP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합니다

AI 휴먼 취업지원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김희동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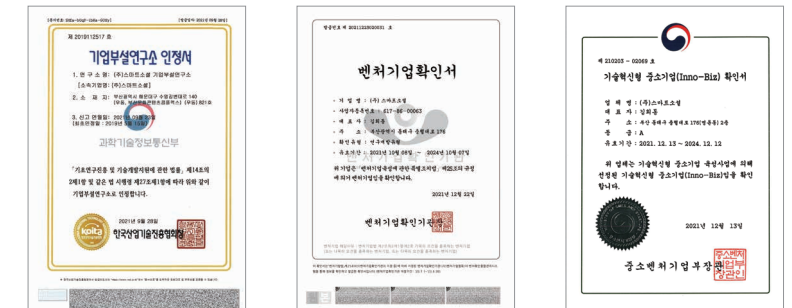
1, 2_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



(주)스마트소셜 김희동 대표

박람회 속, AI기술을 통한 취업지원 솔루션 주목

(주)스마트소셜은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와 K-ICT WEEK in BUSAN [AI KOREA 2021] 박람회 참가를 통해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취업지원 플랫폼들을 소개하였다. AI KOREA 2021 박람회에서는 AI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로 선택을 도와주고 전문가의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AI 커리어관리 플랫폼 ‘잡이지’ 뿐만 아니라, 신제품인 AI 휴먼 취업지원 시스템도 소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구직자가 원하는 취업정보를 AI휴먼이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고용 지원 운영기관 안내, 취·창업 지원사업 조회, 채용공고 안내를 키오스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는 부산시와 공동관을 꾸며 진행하였으며 부산시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안내’ 키오스크와 함께 신제품인 ‘밋팔’을 선보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안내 키오스크’는 부산의 기계부품산업 기업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밋팔’은 화상면접과 컨설팅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전용부스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 되면서 화상면접 공간 마련이 어려워진 구직자들을 위해 제작된 부스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주)스마트소셜의 각종 특허증들



부산광역시 교육청 협약식(MOU)

다년간의 운영노하우와 경쟁력으로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주)스마트소셜은 전국 최초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과의 'AI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MOU)'를 체결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의 충남 취·창업 카페에 'AI 직무역량 컨설팅 (잡이지)'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 청년 AI면접·취업역량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인천시 교육청의 인천 사이버진로교육원에 빅데이터 활용, AI 기술을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진로AI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검사, 진로추천, 진로체험, 진로진학정보를 제공하는 학생중심의 진로교육 참여 공간이다. 인천사이버 진로 교육원은 교육부 주관 '2022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되며 (주)스마트 소셜의 AI기술이 인정받고 있다.



1_ 인천광역시사이버진로교육원 홈페이지
2_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AI 직무역량 컨설팅(잡이지)

새로운 기회,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LINC 3.0) 거버넌스 포털·플랫폼

LINC 3.0 거버넌스 포털·플랫폼은 LINC 3.0 핵심가치인 인력양성, 가치창출, 산학협력, 공유/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학교, 학생, 기업이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 기술 등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다. 1차 년도 13개 대학을 시작으로 6년간 40개 대학으로 확대 예정이며 여러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LINC 3.0 공유·협업 거버넌스 미래인재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대학 재학생



LINC 3.0 거버넌스 공유·협업 플랫폼 발족식



3_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협약식
4_ 2022 캠코 ESG 서포터즈 발대식
5_ 부산상공회의소 경제포럼 이달의 스타트업 코너

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 환경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실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미래인재 기업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는 기업

2012년 설립된 스마트소셜은 약 1년 6개월 뒤 사회적 경제 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2020년에 부산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김희동 대표는 모든 이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취업·경력관리의 종합컨설팅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AI 커리어 플랫폼 잡이지를 개발했다. 잡이지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소 노력이 정부로부터 크게 인정받아 21년 HR Tech 기업 스마트소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발전 공로 표창을 받았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캠코의 [희망 Replay, 대학생 취업잡이 프로젝트]와 [ESG 서포터즈],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 [BUFF], 한국남부발전의 부산지역 인재의 구직 역량 강화 사업인 N(cs)DREAM 오픈캠퍼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스마트소셜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쌘쌘이가 바른기업' 릴레이 캠페인 참여와 아동 보호 및 지원 사업등에 앞장서고 있는 굿네이버스 영남지역 본부와 함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도움을 지속해 나갈 예정 이라고 한다.

고용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

(주)스마트소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IT기술로 취업시장의 잡미스매치를 풀어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Korea Startup Forum] 이달의 스타트업 자격으로 참여하여 (주)스마트소셜만의 고용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잡미스매치 해결방안을 발표하였다. 김희동 대표는 진로, 진학 데이터들이 향후에 합쳐지게 되면 생애 주기별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는)비즈니스로 향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취업, 맞춤형 고용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주)스마트소셜의 앞으로가 기대 된다.

MZ세대들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행복한 삶? 단란한 가정? 소속감과 안정감? 그동안 기성세대들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혼기가 차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오래 만나온 연인 또는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곤 했다. 하지만 요즘 MZ세대들에게 결혼은 이전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과연 요즘 세대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행복을 추구해!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비혼주의가 늘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 혼자 라이프를 즐기는 1인 가구, 여러 명이서 생활하는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본인들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결혼 좀 미루면 어때

결혼 연령,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난자동결’을 하는 여성 또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난자동결’은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해 향후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시술로 늦은 결혼과 출산의 적극적인 대비책이다. 시술비용은 약 300만원 정도이고 보관비용은 연간 30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결혼은 안해도 아이는 좋아

해외 여성 MZ세대를 중심으로 자발적 비혼모인 ‘초이스맘’ 열풍이 불고 있다. ‘초이스맘’은 선택에 의한 한부모(single mother by choice)를 줄여 부르는 말로 결혼하지 않고 정자은행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정자를 직접 선택 후 구입하여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여성을 말한다. 이러한 열풍에 사람들의 의견은 많이 나뉘고 있다. “대단하다”, “아빠 없이 잘 클 수 있을까?”, “경제적인 여유가 가능한 사람만 할 수 있을 거 같다” 등 다양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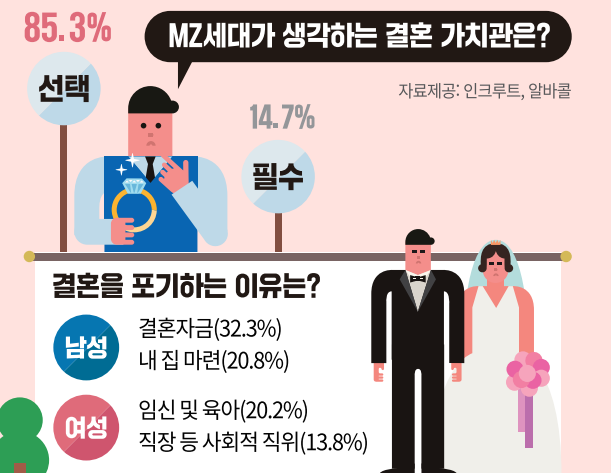


#결혼은 일종의 비즈니스 아닌가?

MZ들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혼전계약서’는 혼인신고서와는 다른 개인간의 계약서로 부부끼리 공유재산과 개인재산을 나누어 관리하면서 결혼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주로 부부 사이의 돈, 가사 분담, 이혼 시 공유재산 분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거 같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저렇게 까지 해야되나”등 찬·반을 논하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소개팅 No 내 상대는 직접 고른다!

결혼을 이어주는 결혼정보업체가 MZ세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성수기를 누리고 있다. 인기를 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조건을 보지 않고 만나는 일반적인 연애와는 달리 결혼상대로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서 만남과 교제를 통해 결혼 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MZ세대들은 성장해오면서 각종 학원 및 PT 등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한 만큼 결혼에 관해서도 전문가를 통해 빠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선호 한다고 한다. ‘결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가 말하는

“당신 회사의 ‘경(經)’은 무엇입니까?”



주요 경력

- 현) 피와이에이치 대표이사
- 현) (주)우아한형제들 커뮤니케이션 총괄이사
- 전) (주)카카오 홍보이사
- 전) (주)삼성전자 마케팅 전략고문

주요 저서

- 관점을 디자인하라 확장판(2018)
- 오피스리스 워커(2018)
-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2015)

좋은회사란 어떤 회사일까요? 좋은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경영을 하는 사람은 물론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있는 내용일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질문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출근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하루의 시작이기도합니다. 직장인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많은 부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회사에서의 아주 평범한 일과를 어떤 사람은 즐겁게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속된 표현으로 죽지 못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질까요? 저는 회사구성원들을 만나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회사가 당신을 위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회사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그 회사의 수준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구성원들이 많은 회사도 보았고, 어느 회사는 “전혀요”라고 포기한 듯 고개를 가로짓던 구성원이 대부분인 회사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 오래 못갈거라며 다른 회사를 찾고 있다고 말하더군요(실제로 그 회사는 얼마 전 망했습니다).

경영자의 경영에 대한 정의

이러한 차이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경영자의 ‘경영(經營)’에 대한 정의(definition)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매니지먼트(management)라고 하죠. 어떤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경영과 그렇지 못한 경영은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요? 장사(sales)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경영을 잘 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경영에 대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좋은 경영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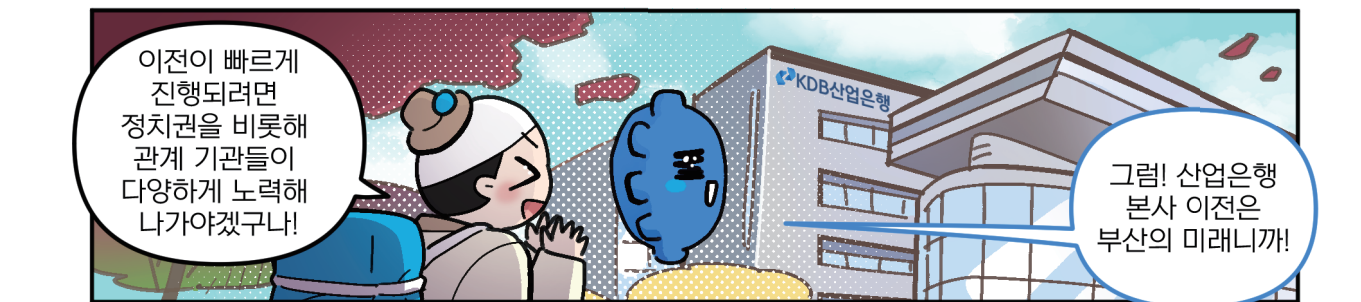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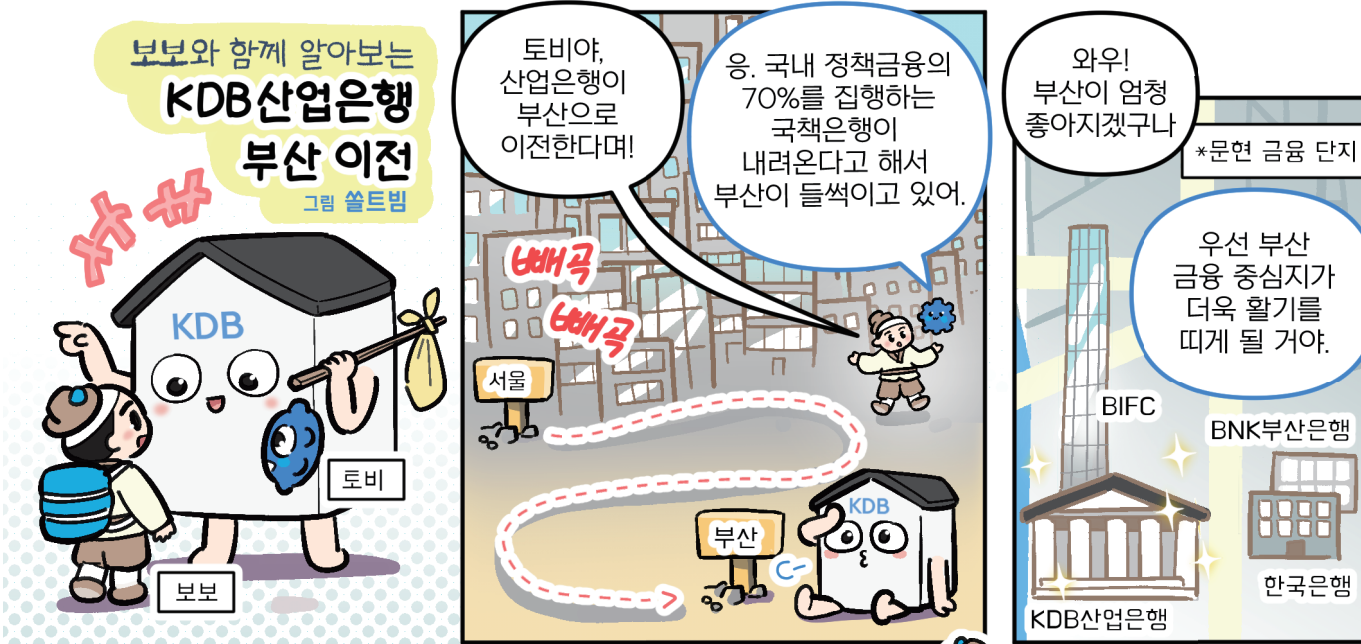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이 시대가 원하는 좋은 경영은 무엇일까요? 경영(經營)의 맨 앞에 있는 글자 경(經)의 유래에서부터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저의 철학적 스승이신 최진석 교수님께서 ‘경(經)’에 대한 해석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불경, 경전 등에 쓰이는 ‘경(經)’이라는 글자는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의존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고있다고 합니다. 즉 시대적 비전이나 이념, 이데올로기를 부여 받는다는 것이죠. 즉 ‘경(經)’은 ‘시대적 생각의 기준점’ 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경’은 비전, 꿈,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 실현하는 것’을 ‘영(營)’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제가 경영했던 그리고 제가 경영을 돕는 회사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경영자들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자주합니다. “당신 회사의 경(經)은 무엇입니까?”라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 교수는 기업의 존재 목적을 ‘이윤추구’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천박하고 수준이 낮다고 말하십니다. 목적과 수단의 혼동 때문에 기업 경영이 잘못되는지도 모릅니다. 목적과 수단을 잘못 판단한

댓가가 잘못된 기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를 통해 사회의 진화에 공헌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가져야 할 원칙, 즉 펼칠 뜻과 꿈, 비전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경영을 해석해 보면 기업의 존재이유도 보이고 좋은 경영도 보입니다.

착한 부자가 많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주변에서 많은 경영자를 만납니다. 그저 잔재주를 갖고 기업을 경영하는 자도 보았고, 튼튼한 철학적 토대를 기반 삼아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도 보았습니다. 누가 더 지속 가능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입니다. 부자들에게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은 대부분 아무런 생각 없이 돈만 벌겠다는 욕심만으로 잔재주를 부리며 돈을 벌어난 졸부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도량이 좁고 졸렬한 사람’이라는 뜻의 ‘졸부(拙夫)’가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猝富)’가 되면 세상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착한 부자가 많아지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부자에 대한 부러움으로 인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돈으로 바꾸는 ‘긍정적 영향력’이 아름다워 보여서 부자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키워드에서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1 부산 이전 추진 경과

-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산 발전 공약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제시('22. 1.)
-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명시('22. 5.)
- ☑ 윤석열 대통령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강석훈 산업은행장에게 지시('22. 8. 31.)
- ☑ 강석훈 산업은행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 피력('22. 9. 14.)
- ☑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답변('22. 10. 6.)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부산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세계적인 무역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석훈 산업은행장에게 주문하였다.

02 부울경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 ☑ KDB산업은행은 자본금 약 30조, 직원수 3,300여명으로 국내 정책금융의 약 70%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부산시에 따르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 2조4천76억원 부가가치 유발

- 효과 1조5천118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6천863명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 금융 중심지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기업 유치를 가능하게하고, 부·울·경을 4차 산업 중심의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 국토비중의 11.8%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4%가 몰려있고, 기업, 자본,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03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당면과제

- ☑ **한국산업은행 법 개정**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인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라는 조항의 삭제 또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며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
- ☑ **이전을 반대하는 직원들과 소통을 통한 설득**
최근 부산시가 발족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이 산업은행 이전의 행정적 지원과 직원들의 주거, 교육,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이전을 반대하는 노조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도 이뤄져야 함.

CEO를 위한 경영 & 경제 추천도서



도서추천
영광도서
Since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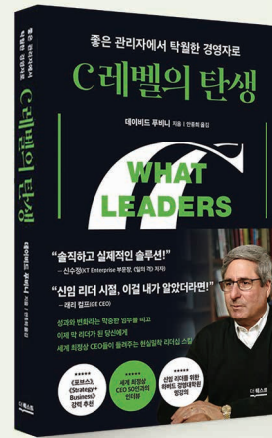


01 **비즈니스의 미래**
야마구치 슈 | 흐름출판 | 16,000원

팬데믹 이후 더욱 둔화한 경제성장률,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두고 많은 이들이 '저성장', '쇠퇴'라고 자조한다. 이 책은 국내 20만 부 베스트셀러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야마구치 슈의 화제작으로, 성장이 멈춘 시대를 보는 새로운 관점과 경제 프레임 제시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사고의 대전환, 사회적 시스템 재설계 등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저성장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물질적 성장이 마무리되고 가치 성장으로 나아가는 변곡점이다. 가치 성장의 사회에선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단적 일이 아닌 내가 하는 활동 그 자체로 보수를 받는다. 창조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충동에 의한 즐거운 일이 노동시장에 거래되는 것, 즉 활동 자체가 상품으로 팔리는 '자기충족적' 사고방식이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속해서 어긋나고 인류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현재, 하락세를 극복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보자.

02 **유저 프렌들리**
클리프 쿠양, 로버트 패브리칸트 | 청림출판 | 18,000원

이제 소비자들은 간단한 사용법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한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혁신적인 상품일지라도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면 디자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 또한 이 흐름에 따라 '사용자 친화적' 알고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애플, 구글, 디즈니, IBM, 테슬라, 아우디, 포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소비자에게 공감하는 일이 기업의 발전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차린 것이다.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인 클리프 쿠양과 디자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활발히 알리고 있는 달버그 디자인의 공동 창업자 로버트 패브리칸트는 이 책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의 개념과 그 의미를 전하고 있다. 사용자 친화성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을 담았다. 루이 15세의 팔걸이의자부터 포드의 자동차 생산 라인, 애플의 시리까지. 사용자 친화적 디자인의 흐름을 이해하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는 상품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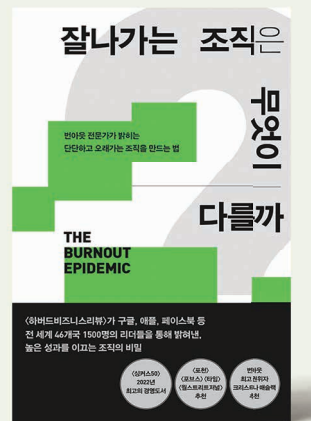


03 **C레벨의 탄생**
데이비드 푸비니 | 더퀘스트 | 19,500원

놀라운 비전과 전략, 뛰어난 리더십, 든든한 경영진과 폭넓은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새로 부임한 C레벨 리더 3명 중 2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맥킨지에서 35년간 저명한 기업의 최상위 경영자들에게 리더십 멘토링과 컨설팅을 하며 실제 리더들의 고군분투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자 데이비드 푸비니는 술한 신입 리더들이 그러한 냉혹한 진실을 직면하는 이유는 부임 즉시 발생할 현실적인 충격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신입 리더가 부임 직후 실제 맞닥뜨리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저자의 오랜 컨설팅&멘토링 경험과 전설적인 CEO 잭 웰치를 비롯해 래리 컬프(GE CEO), 리드 헤이스팅스(넷플릭스 CEO), 래리 핑크(블랙록 CEO) 등을 비롯해 50여 명의 다양한 업종과 분야에 있는 전·현직 CEO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명쾌하고 실제적인 리더십 스킬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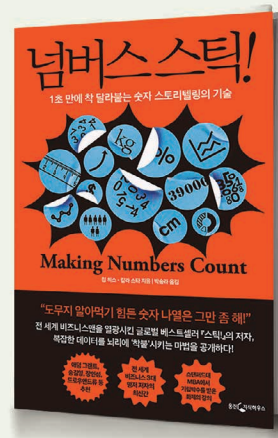
04 **잘나가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
제니퍼 모스 | 심심 | 20,000원

번아웃으로 인한 효능감 저하와 무력감으로 인한 성과의 저하는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 책은 리더와 직원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직장 문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세계적인 번아웃 전략가이자 기업 컨설턴트로 번아웃과 리더십, 건강한 직장 문화에 관해 유수의 기업들에서 수많은 강의를 해왔다. 이 책에서 실제로 번아웃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구글, 애플, 페이스북을 포함한 전 세계 46개국 1500명의 리더 인터뷰, 실제 사례, 번아웃 관련 최신 심리 이론과 번아웃 최고 권위자들과의 공동 연구 결과 등을 총망라하여 번아웃이라는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번아웃 전문가가 말하는 떠나기 싫은 조직의 핵심 전략을 담은 이 획기적인 번아웃 안내서는 조직 문화와 직장 내 관계뿐 아니라 성과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05 **넘버스 스틱**
칩 히스, 칼라 스타 | 웅진지식하우스 | 17,000원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를 창안하며 전 세계 비즈니스맨을 열광시킨 글로벌 베스트셀러 『스티크!』의 공저자 칩 히스 스탠퍼드대 조직행동론 교수의 책으로, 머리 아픈 데이터를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로 탈바꿈시키는 메시지 설계의 최종 진화를 담았다.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 마케팅 캠페인뿐 아니라 숫자 없이는 그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시대, 오직 '숫자 스토리텔링'을 다룰 줄 아는 자만이 상대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맥북을 더 얇아 보이게 만든 마법의 프레젠테이션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의 숫자 기억력을 두 배 향상시킨 비결, 건조한 통계로 전쟁터의 생명을 구한 나이트게일 등의 역사적 사례는 물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각 나라의 캠페인 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초강력 메시지의 비밀이 모두 담겼다.



대선조선(주) 동의과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선조선(주)은 10월 4일 동의과학대학교와 글로벌 조선인력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선조선(주)과 동의과학대학교는 협약을 통해 글로벌 조선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협약 기관 및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인력양성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선조선(주) 관계자는 “협약을 통해 향후 글로벌 조선 인력 기술인 발굴에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산해운항공(주) 양재생 회장 자랑스러운 부산시민상 대상 수상

은산해운항공(주)은 10월 5일 ‘제43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양재생 회장이 ‘제38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이다. 양재생 회장은 2030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붐업 분위기 조성,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 등 부산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라는 초공정 마인드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주)한국거래소 부산지역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해 후원금 1억원 전달

(주)한국거래소는 10월 6일 부산지역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부산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돌봄센터에 심리안정실과 같은 특수 환경 조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주)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재)서원나눔 ‘제4회 서원나눔 사회복지사상’ 시상식 개최

(재)서원나눔은 10월 7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제4회 서원나눔 사회복지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부산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복지문화 활성화에 공로를 인정받은 5년 이내의 사회복지사 경력자 10명에게 상패와 1인당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었다. ‘서원나눔 사회복지사상’은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지금까지 총 40명이 수상해 왔다.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 김정순 회장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부산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는 10월 11일 김정순 회장이 법무보호 사업지원금으로 1년간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후원하였다고 밝혔다. 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도 최근 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돕기로 했다. 김정순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과 범죄예방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주조(주) 엑스포 유치 기원 특별 에디션 2030만병 생산

대선주조(주)는 10월 17일 주력 제품인 ‘대선’의 주상표에 2030부산월드 엑스포 로고를 새긴 특별 에디션 출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선주조(주)는 내년 11월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2030만 병을 생산해 유통시킬 예정이다. 대선주조(주) 관계자는 “세계인의 축제이자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홍보에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주)BNK부산은행
‘디지털바우처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

(주)BNK부산은행은 10월 17일, 지역경제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바우처 신규가입’ 이벤트를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바우처’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지급으로 결제, 송금 수당관리 등 분산돼있는 지급수단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부산은행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서 디지털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에어부산(주)
부산-후쿠오카·오사카 매일 왕복 2회 운항

에어부산(주)은 지난 10월 11일 일본의 무비자 입국 시행일 이후부터 기존 3회와 4회 운항하던 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노선을 10월 17일부터 매일 왕복 2회 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증편을 통해 김해공항에서 후쿠오카와 오사카 노선을 유일하게 하루 두 차례 왕복 운항하게 되었다. 에어부산(주) 관계자는 “에어부산의 강점인 편리한 스케줄과 합리적인 운임을 통해 일본 노선을 선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로키산맥으로 표현한 겨울 맥주 ‘쿠어스’ 출시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세계 3대 맥주 기업 몰슨 쿠어스와 협업을 통해 미국 프리미엄 라거 맥주 ‘쿠어스’ 판매를 시작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쿠어스’ 맥주는 149년 역사를 자랑하는 몰슨 쿠어스의 대표 맥주 중 하나로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골든블루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판매 채널 확대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대원플러스건설
‘쌘쌘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주)대원플러스건설은 10월 1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쌘쌘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쌘쌘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형편이 어려워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주)대원플러스건설 관계자는 “적십자사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며 부산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동성모터스
마산대학교와 채용연계형 인턴십 운영 협약체결

(주)동성모터스는 10월 20일 마산대학교와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용연계형 프로그램은 동성모터스와 대학이 기술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에게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성모터스는 각 지역에 있는 공식 서비스센터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습 종료 후에는 채용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동성모터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파나시아
이수태 회장 2022 대한민국 해양대상 수상

(주)파나시아는 10월 25일 ‘2022 대한민국 해양인의 밤’ 행사에서 이수태 회장이 2022 대한민국 해양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수태 회장은 조선기자재 산업에 30년 이상 헌신하면서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기업’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와 황산화물 저감장치 등을 개발해 조선기자재의 국산화 길을 여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부산 최초 첨단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수소 개질기와 탄소 포집 장치 개발로 탈탄소화에 기여했다는 점도 높이 인정받아 해양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슬기로운 회원생활

부산상공회의소 실무교육 안내(11월)

부산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의 각종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2022년 개정세법 반영 결산회계감사 및 핵심 세무조정 체크포인트

|일 시 11.4.(금) 09:30~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오종원 회계사(한울 회계법인)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 용

주제	내용
주요 항목별 결산 체크사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상 주요 결산항목별 결산 및 회계감사 수정분개시 유의사항 자산 항목의 결산 및 회계감사시 감사인 요청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은행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등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 적적성 테스트 절차 등
주요 항목별 결산 체크사항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항목의 회계감사시 감사인 요청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명세서 등: 차입금 잔액의 적정성 체크방법 자본항목과 수익 비용항목의 감사시 감사인 요청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reconcile, 은행계정조정표의 의미 등 일반기업회계와 국제회계의 결산시 주요 차이 해설
주요 항목별 결산 세무조정 체크사항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산회계감사시 구비된 자료와 법인세 세무조정시 요구되는 주요 계정별 항목의 연과관계 해설
주요 항목별 결산 세무조정 체크사항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개정세법 반영 - 결산 및 놓치기 쉬운 주요 법인세 세무조정 사례 설명 및 분석 - 절대비·퇴직연금·대손금·2022개정 업무용승용차량 세무조정·가지급금 인정이자·수출입 기업의 세무결산시 유의사항 등 - 최신 법인세 이후 이후 국세청 사후검증 추정대상 항목 분석



2일 완성! 실무노동법 마스터

|일 시 11.7.(월)~8.(화) 09:30~17:30 (2일 14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강 사 이원희 노무사(노무법인 가교)
|수강료 회원 154,000원, 비회원 308,000원
|내 용

주제	내용
1일차	
제1장 노동법 해석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변경된 판례(연차 등) · 행정해석 해설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상호관계 근로계약(근로자)과 위임계약(프리랜서)의 차이 파견과 도급의 구분(불법파견 판단기준 등) 근로감독·점검 시 대응요령
제2장 근로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등)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3장 근로시간·휴일 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직 연장근로시간 산정원리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의 事前포함 시 유효성 유연적 근로시간제(4가지 유형) 운영 방법과 절차 휴일과 휴가, 휴일의 대체, 대체공휴일 연차휴가제도의 운영원리 및 실무상 유의점
2일차	
제4장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보수, 소득)와 임금의 차이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각 세부사항 해설 임금의 삭감·반납·동결 시 유의사항
제5장 취업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규칙 작성(육아휴직 후 처우, 직장괴롭힘 등)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제6장 근로관계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이동, 배치전환 시 유의점 저성과자 권고사직(명예퇴직) 방법 및 절차 징계하고 시 주의사항

2022년도 제27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실무

|일 시 11.16.(수) 09:30~17:30 (1일 7시간)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강 사 이석정 세무사(세무법인 현인)
|수강료 회원 77,000원, 비회원 154,000원
|내 용

주제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세 개요 및 현황, 신고·납부시 유의 및 검토할 사항 세무조사시 부가가치세 추정사례, 예규소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징수와 그 특례, 발급의무와 그 면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발급 시기,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매출액 (=과세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 및 공급 시기 의제와 선발급 특례
영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율 적용대상,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매입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가능 매입세액, 공제불가능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 등과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정고지·미환급세액, 가산세
신고 및 납부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별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시 주의사항 및 각종 Q&A

부가세 신고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실무전문가에게 배우세요!!



신입사원 OJT 교육비용 지원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선정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을 통해 귀사가 채용한 신입직원의 업무적응과 장기근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개요

신규 채용 후 1년 미 경과 직원의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생산활동을 현장교육(OJT)으로 인정하는 훈련비와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귀사 직원을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로 선정하여 별도의 업무 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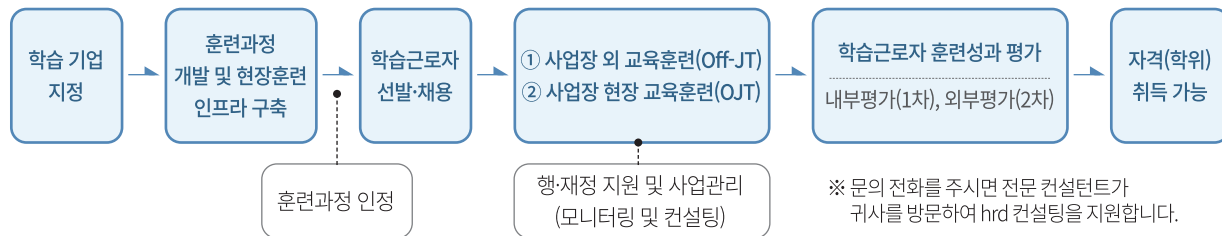
02

참여요건 및 대상

-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20인 미만 사업장 별도 심사)
- 재직기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외국 국적 (F4~F6 비자 소지) 근로자

03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04

OJT(직무)분야

총무·인사, 생산관리, 품질경영, CNC가공, 설계(선박, 해양플랜트, 기계, 금형 등), 전기·전자제어, 소음진동, 용접분야 등

참여기업 혜택(지원금)

예시 : (산업형, 12개월, 600(h), 우대직종, 학습근로자 5명) = 총 58,596천원

훈련단계	지원내용	학습근로자 수 (명_ 천원)					
		1명	3명	5명	7명	9명	10명
합계(천원)		28,596	43,596	58,596	73,596	88,596	96,096
간접 지원비 소계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훈련준비	과정개발비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600	600	600	600	600	600
직접 지원비 소계		26,496	41,496	56,496	71,496	86,496	93,996
훈련실시	OJT훈련비	2,700	8,100	13,500	18,900	24,300	27,000
	훈련장려금	2,400	7,200	12,000	16,800	21,600	24,000
	현장교사 수당	15,996	15,996	15,996	15,996	15,996	15,996
	HRD담당자 수당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훈련종료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	2,400	7,200	12,000	16,800	21,600	24,000

*간접비=개발자에 지급 **직접비=참여기업 통장입금 ***600(h)=OJT(450h)+Off-JT(150h)

인센티브(추가): (병무청)산업기능요원 배정(1순위), (조달청)물품제조·입찰적격심사 가점(안전보건공단)클린사업장선정 가점 (고용부)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복수급 가능

※ 효과: 지속적 직무교육지원을 통한 적응력 향상과 장기근속에 의한 고용안정 유도

「일자리매칭 플랫폼」

홈페이지 개편 안내

<http://bccr.or.kr/job/>

사업개요

- 직업교육 전문기관 기술 수료 인재 POOL을 통한 부산기업 일자리 매칭 지원 - 20개의 직업교육기관과의 전문인력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사업내용

- 구인·구직 JOB 매칭데이 개최, 상시 일자리매칭 지원, 일자리매칭 네트워크 실무협의회 운영 등

개편내용

- 구인·구직 신청 간편화

부산상공회의소 & 직업교육전문기관
전문기술교육 수료 인재 POOL을 통한 JOB매칭



- 카카오톡 실시간 온라인 구직상담 서비스 구축



- 「부산상공회의소-직업교육 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홍보 - 총 20개의 직업교육전문기관 상세 페이지 추가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직업교육 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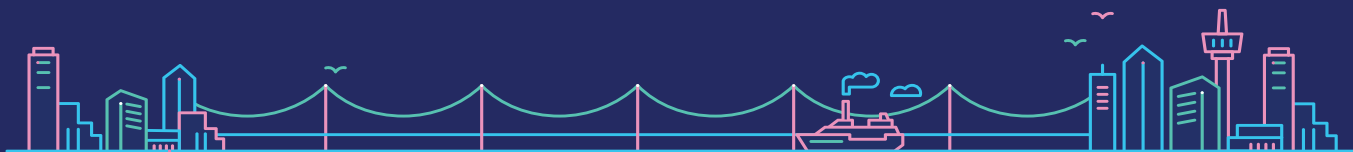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대한민국 첫번째 월드엑스포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뛰겠습니다!

2023년 12월 개최도시 결정



 부산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사)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민무지원위원회